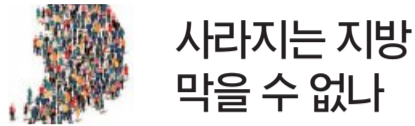


농촌엔 독거노인만 남고... 도시는 도심 공동화 심화



사라지는 지방
막을 수 없다

〈2〉 인구소멸 지역 고흥·여수 가보니
한때 100여 가구 거주하던 마을
청년들 없어 통째로 사라질까 걱정
여수 구 도심 아파트 단지에는
밤에 불 켜진 집이 절반도 안 돼

전남지역이 농·어촌과 도시 할 것 없이 '인구 소멸' 직격탄을 맞아 황량해지고 있다.

농·어촌은 인구 유입 없이 청년들이 떠나고 노인들만 남아버린 터라 수십년 뒤엔 마을이 통째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고, 전남 일부 도시도 타 지역으로 사람들이 빠져나가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전남지역 인구소멸 1순위로 꼽히는 고흥군에서는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마을이 하나 둘씩 통째로 사라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6일 찾아간 고흥읍 호동리 호동마을은 낮 최고기온 10도 안팎의 따듯한 날씨에도 거리에 오가는 사람 없이 고요했다.

호동마을은 고흥읍 중심지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으로 한 때 100여가구 넘게 거주해 북적북적한 곳이었으나 지금은 70여가구가 남았는데 그나마도 대부분 독거노인들만 남아있다.

마을 곳곳에는 수십년씩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쓰러져가는 빈 집이 눈에 띄었고, 낡은 축사에는 소 한 마리 찾아볼 수 없었다. 골목 사이사이 자리잡은 텃밭에서는 제때 수확하지 못한 배추·파 등이 방치된 채 썩어가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다.

한때 마을 사랑방 역할을 했던 마을회관도 썰렁



동네 사랑방 역할을 했던 농어촌 마을회관은 이제 찾는 이가 많지 않아 썰렁해진 지 오래다. 6일 고흥군 고흥읍 호동리 마을회관은 70가구 주민들의 사랑방이지만 고작 5명만 모였다(왼쪽). 같은 날 여수시 여서동 문화의 거리는 1000만 관광객이 다녀간 지역 대표 관광 명소임에도, 오가는 사람 없이 한적했다.

하긴 마찬가지였는데, 이날 회관에는 80~90세 할아버지 5명과 할머니 7명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류제상(85)씨는 "수십년 전부터 젊은 사람들은 서울이나 광주같은 객지로 가 버리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며 "옛날에는 집집마다 10여명씩 대가족이 살아서 조용할 일이 없는 동네였는데, 이제는 빈 집 투성이에 홀로 사는 노인들만 남았다"고 말했다.

송영순(여·80)씨도 "은 마을을 통틀어 어린이라고는 단 2명 뿐인데, 둘 다 다문화가정 아이들로 6년 전에 낳은 게 마지막이다"며 "새로운 사람이 좀 왔으면 좋겠지만, 누가 이런 촌까지 오겠나. 우리 세대가 지나고 나면 마을에 빈 집만 늘어날 것이다"고 혀를 찼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고흥군은 지난해 3월 기준 인구 소멸위험지수가 0.12까지 떨어졌다. 소멸위험지수는 지역 내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전체 인구로 나눈 값으로, 숫자가 낮을수록 소멸 위험이 크다. 고흥군은 경북 군위군과 의성군(각각 0.11)에 이어 전국 3위에 자리잡았다.

고흥군은 1968년까지만 해도 인구 23만 7223명이 거주하는 대도시였으나, 지난해 12월 기준으로는 6만 1880명으로 74% 인구가 빠져나갔다.

인구감소세와 맞물려 생활여건도 나아지지 않고 있었다. 고흥군 내 종합병원은 단 1곳밖에 없는데, 그나마 고흥읍에서 가깝다는 호동마을에서조차 7km 떨어진 곳에 있다. 버스도 한 시간에 한 번 쯤 오는 터라 자식들이 데려다주지 않으면 병원도 쉽게 못가는 처지다.

송은심(여·87)씨는 "멀리 사는 자식들 고생시키니 그냥 아파도 참는 게 상책이다"며 "수십년 이렇게 살아 온 노인들이야 그러려니 하지만, 어떤 사람이 이런 불편한 동네에 새로 이사 오고 싶어 하겠



느냐"고 말했다.

전남지역 도시도 다르지 않았다. 전남 2대 도시로 꼽히는 여수시는 잇따른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같은 날, 여수시 여서동 문화의 거리는 '불금'(불타는 금요일)인데도 오가는 사람 없이 한적했다. 이곳은 2000년까지만 해도 여수시 '핫 플레이스'로 꼽혔던 곳이다. 해가 저자 상인들은 가게 불을 환하게 켜고 손님을 받을 준비를 마쳤지만, 찾아온 손님이라고는 겨우 한 두 테이블을 채우는 수준이었다.

이곳에서 21년째 고깃집을 운영해 온 양모(67)씨는 "해가 갈수록 손님 줄어드는 것이 체감되니 술을 가게 정리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하나 고민 중"이라며 "시장에서 여문지구(여서동·문수동)를 활성화 한다고 큰소리 치더니 오가는 사람은 없고, 주차

장도 없어 연일 파리만 날린다"고 말했다.

인근 주택가도 마찬가지로 조용했다. 밤이 깊어 가도록 대다수 아파트 단지는 이가 빠진 듯 불 켜진 집이 채 절반이 안 돼 쌀쌀한 겨울날씨만큼 쓸쓸한 스러웠다.

인근에서 4년째 술집을 운영 중인 김모(60)씨도 "사람들이 타 지역으로 다 빠져나가니 구도심은 그냥 사라질 위기다"며 "관광객이 많이 늘었다지만, 지역 거주민 상대로 장사하는 동네 술집은 도저히 장사할 맛이 안난다"고 하소연했다.

여수시는 지난 1998년 3여(여수시·여천시·여천군) 통합 당시 33만 213명의 인구를 자랑했으나, 이후 꾸준한 인구 유출·감소를 겪어왔다. 지난해 12월 기준 여수시 인구는 27만 4765명으로, 15여 년만에 16%의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직장인들 '자발적 이직' 늘어난다

광주, 지난해 3분기 7512명
1년 사이 1000명 증가

일과 삶의 균형에 집중하는 MZ세대 특유의 가치관이 발현하고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면서 '자발적 이직'을 택한 광주지역 사업체 종사자가 1년 새 1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광주에서 근로자 스스로 퇴직한 자발적 이직은 7512명으로, 1년 전보다 15.4%(1003명) 증가했다. 지난 3분기 자발적 이직 증가율과 증가 폭은 통계를 낸 2018년 이후 최대치다.

이처럼 스스로 일터를 떠나는 직장인이 늘어나는 건 심리적 퇴사로 여겨지는 '조용한 사직'

(Quiet Quitting)이 요즘 직장 문화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미국에서 시작한 신조어 '조용한 사직'은 직장을 그만두지는 않지만, 정해진 시간과 업무 범위 내 최소한의 주어진 일만 충실히 하는 유행을 말한다. 소셜미디어(SNS)나 온라인 대화 공간에 '조용한 사직'을 고백하는 직장인들이 잇따르며 우리나라에서도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

지난 2021년 광주시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직장 내 애로사항을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답한 비율은 20대가 51.8%로 가장 낮았다. 광주시민 평균 응답률(67.7%)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직장 내 애로사항을 생각해 본 적 없다는 비율은 70대가 91.5%로 가장 높았고, 60대(80.9%), 50대(74.4%), 40대(65.9%), 30대

(61.9%), 20대(51.8%), 15~19세(29.9%) 순으로 나타났다.

20대 응답률은 2019년(58.5%)보다 6.7%포인트 내려갔다. 20대가 직장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2년 새 높아졌다는 뜻이다.

직장의 근로여건 만족도를 묻는 항목에서도 MZ세대의 불만족도는 높았다.

'하는 일에 만족하지 않는다'(매우 불만족·약간 불만족)는 광주시민 평균 비율은 13.6%로, 이 수치를 웃도는 연령대는 15~19세(31.4%), 20대(17.2%), 30대(15.1%)가 있었다.

직업 불만족도는 70세 이상이 9.2%로 가장 낮았고, 50대(10.8%), 40대(13.3%), 60대(13.6%)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대학지원 권한 2025년부터 지방 이양·위임

당정, 부실대학 구조개혁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8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교육부가 가진 대학 지원과 관련한 권한을 오는 2025년까지 지방으로 이양, 위임하기로 했다.

또한, 대학의 학과 신설, 정원 조정, 재산 처분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고,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재산 처분 등에 특례를 부여해 퇴로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90분 동안 국회 사랑제에서 제7차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우선 위기에 처한 지방 대학과 지역이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

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학 지원 권한의 지방 이양·위임을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올해는 5개 시·도 내외에서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

이울러 당정은 고등 교육 분야 규제를 혁신하고,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개혁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영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Mercedes-Benz Certified

이보다 쉬울 수 없다. 가장 손쉽게 만나는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변함 없는 클래스의 인증 중고차들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온라인샵에서 주문해 보세요.
단 몇 번의 터치만으로 편리하게, 빠르게.

- 온라인 결제 시스템
- 6년 / 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중대
- 국내 수입처 최다 인증 중고차 전시장 보유
- Trade-in 프로그램
- 차량 매입 프로그램
-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 1년 / 2만km 무상보증 수리 프로그램

www.mercedes-benz-certified.co.kr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 광역시 서구 상당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천동)